東亞日報 夕刊
四月二十日(土)

最後決定보기까지 라인要塞構築保留

獨逸의態度如何探索 ◇英對獨質問內容

一、...

二、...

三、...

[倫敦二十三日發同盟]

獨、殖民地返還要求 佛國은絕對反對

今後態度正式宣明

伊東阿遠征軍 土民慰撫工作에努力

各地에 兵舍도 急速建築

에國戰況發表

伊空陸軍互相呼應

에國首都進擊

三笠宮殿下 朝鮮神宮御參拜

空前의尨大豫算

米上下兩院妥協成立

海軍防備費만八百五十餘萬弗

上院과併行的으로 二週以內可決

米알海軍根據地案

에皇太子御歸還

國府、憲法修正?

「大統領에게最高執行權附與」의 一條項削除키로決定

蔣氏獨裁案 常務會議에서可決

"外交의一元化와 强力國策遂行"

第一回三相會議開催

◇滿冀修交條約◇

伊國은벌서 講和代表任命

今話

CC團

米穀自治法案

議會提出키로閣議서決定

火曜會態度强硬 目的貫徹意圖

消息

馬場藏相의 財政演說內容

스에스運河 通過稅改訂

議會終了後

寺內陸相滿洲視察?

팔레스타인事件 死傷者數百名

猶太人과의對立 去益激熱化

横說竪說

クラブプラターム

新學期男女學生大募集 南大門自動車學校(改訂學則要二錢付)

●物理醫療士養成教授 朝鮮高等電醫講習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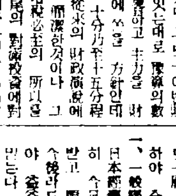
認可電醫 朝鮮唯一 成

運河의微風

나는純眞해요

清水次郎長

團成社



散効田→

東亞案內

恩給 鄭商會

エレバム眞空管 池田電氣商會

紅療家의福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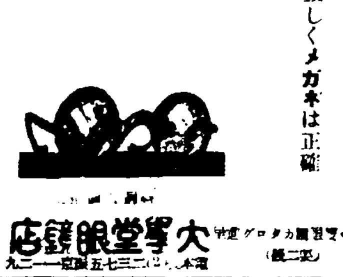
外科 X光線 醫學博士 鄭求忠 病室完備

現代青少年의好職業 通信社員大募集 天詳館通信社

新發賣

芳香原料 化粧品、飲料水、菓子、洋酒、製藥、殺蟲、各種用 染料、無害色素一般 佛國ローチエフィス 香料會社代理店 東華洋行

農林省副業獎勵 軍手製造 專屬製造家募集 十一年度高速度能率機 豊國軍手京城營業所



大學堂眼鏡店

地主들이高價呼로 土地收用令說까지擡頭

五月末日까지地主를懷柔키로 坪當一圓半의大差

暗礁에걸린新水源地

금년부터 四개년계획으로 하공하게된 왕장리(旺場里)수원지가용지매수문제(用地買收問題)로외외 암초(暗礁)에 걸리게되엇다함은 기보한바이나와 이문제는경성부수도과(水道課)와 지주(地主)사이에서 호의로 해결되지못하고 필경 수용령(收用令)의발동을보게될것갓다한다。

왕장리 수원지에 충용될용지의 면적은 왕장리수원지에 충당할왕이 약六千평과선리(船里)외 정수지(淨水池)에 충당할평이 六萬평구선리에서 배수지(配水池)인 대현리(大峴里)까지 배수송수관(送水管)의 면적은 아직 측량중이므로 자세히 알수없으나 약 三萬四千평에 달할것으로 예상되는 용지를 수도과에서는 최하 二十전으로 부터 최고 一원정도로 매수할방침을 세우고 방금관계 지주百여인과 교섭중이나 지주들은 최하 一원 최고 一원五十전을 부르고잇으므로 지가와상은 현상으로는 도저히 원만히 낙착될가능성이보이지안는다 한다。

그러나 수도과에서는 이미금년도공사비로 七十萬원의 예산을세우고잇는 형편이므로 그문제로써 시일을 천연하야갈수도없고 적어도 五월말일까지에는 용지매수를 완료하고 六월초부터는 공사를착수하여야 할것이므로 五월말까지 용지매수문제가 해결되지 안흐면 단연수용령을 적용시킬 방침을세우고잇다 한다。

一審判決그대로 死刑과十三年

有吉公使 謀殺事件關係者 【嚴舜奉과李圭虎】

상해조선인 거류민회장 이용로(李容魯)를 살해하고 또 유길공사(有吉公使)의 모살사건으로 경성一심에서 사형판결을받은 남화한인청년연맹(南華韓人青年聯盟) 엄순봉(嚴舜奉)과 징역 十三년판결을받은 이규호(李圭虎)의 복심판결은 二十四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지전(池田)재판장으로부터 궁정(宮井)검사 간여아래 一심판결대로 언도하엿다。

엄순봉은 一심의 사형에 불복공소한것이오 이규호는 사형을구형하엿든 검사의공소엿는데 복심에서 검사는 엄순봉사형、이규호에 무기징역을 구형하엿든것으로 역시 一심판결이 엄순봉은 사형、이규호는 十三년 징역을 판결한것이다。

피고 엄순봉은 중국옷을 입고 출정하엿는데 사형의판결을 받엇으나 지극히 조용한태도로 불러갓다。

그는 아마 상고하리라고 추측되나 이규호에대한 검사의 상고여부는 아직 알수없다。

新建家崩壞 三名이重傷

昨日、往十里町慘事

二十三일 오후三시경 시내 왕십리(往十里町)八九一 임구봉(任[illegible])이 건축중이든 가옥이 붕연붕괴하야 그곳에 일하고잇든 상신정(上新町) 최영완(崔永完)、청주읍내(淸州邑內)석교정 [illegible]

南大門通에 白晝强盜突現

婦女의金鋒을奪去

[illegible]

迷路兒激增

昨日에만西署에八件

[illegible]

南坟反滿軍과 討伐隊가交戰

[illegible]

花辰앞두고

[illegible]

女高位置交涉 天安邑民活動

[illegible]

興南赤勞組 四名을送局

金英勳等 治維法違反으로 咸興法院檢事局에

[illegible]

間共리로團七名에 無期等重刑을求刑

判決言渡는來二十八日에

被告들은事實을否認

[illegible]

兇器强盜 大邱에出現

[illegible]

媤母업고改嫁햇다 손찌검끝에殺害

一、二審에서 四年懲役받고 揮淚하며上告한女子

[illegible]

科學데-記念의 見學團員을募集

[illegible]

求職四萬千餘에 就職不過萬八千

昨年中에就職戰線의大混亂 女子는男子보다好況

求人	一七、一八六人
求職	二七、一九五人

木浦近海 衝突事件

燈火有無가問題化

양방의 주장이 너무상치돼 京城濟州人會까지蹶起

[illegible]

羅津과雄基를 滿鐵에無償貸付

[illegible]

滿洲人密偵 二名을逮捕

[illegible]

滿洲行하자고 남의婦女誘引

[illegible]

牧丹江市民 萬名을突破

日本內地人	戶數	一、一三五戶
	人口	五、一七三名
朝鮮人	戶數	一、五三三戶
	人口	五、六五四名
計	戶數	三、六六八戶
	人口	一〇、八二七名

三名送局

三次共靑事件

[illegible]

江樹에 春色 …… 푸르러가는 가지

專賣特許 フマキラー 후마키라

理想的殺虫劑
病原菌을擊滅
蠅、蚊、벼룩、빈대、진드기 등 フマキラー는 完全히殺蟲됩니다
液體殺蟲劑中最古한歷史와最新의設備最大의生產量게다가專賣特許製法에依한唯一한强力殺蟲劑！
大下回春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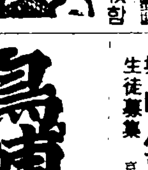
流行歌 님 가실여 오실시절 白桂雲 이런作品이 八十錢이다니! 콜럼비아 大家盤一枚 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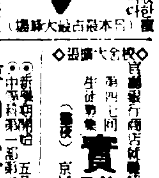
콜럼비아 포-타블 ￥25

不老長壽 強精回春 更年期藥 百補丸 一劑十圓 京城堅志町 平和堂

キンシミルク 긴시미루구

KINSHI BRAND CONDENSED MILK
發賣元 東京 逸見山陽堂

조흔家庭工業 株式會社

偉大한二大工業依賴함

蜜蜂과蜂蜜의大廉賣


運動用品 運動服裝 新荷着 ズック靴 各種ゴム靴 卸商 藤野商會

鳥捕網 秋岡商會

京城中等豫備專修學院 生徒募集

實踐簿記專修學院

ClibPDF - www.fastio.com

朝鮮女性과法律 (10)

女性과 法律上能力

鄭光鉉

妻의 無能力制度가 夫婦間의 平和와 團體를 目的한바라 說明하지마는 그것은 한口實에 지나지 안으며 事實은 夫權制의 封建主義的思想에서 나온것이니 이制度를 廢止한 進步的立法에서 妻의 無能力制度가 决코 不利한것은 아니다. 왜 그런고 하면 이미 말한바와같이 妻가 民法十四條에 違反하는 行爲를 하엿을때에 男便은 그行爲를 取消할수잇는 不安한 狀態에 잇슴으로 (民法第十四條 第百二十條) 그 行爲가 男便의 無許可로 말미암아 全然無效한 바는 아니다. 그러므로 妻가 自己의 家屋을 男便의 許可업시 賣渡한 境遇에 그 賣買行爲가 妻自身에게 有利할것 갓흐면 自己로서나 男便으로 그 賣買契約을 取消할 理致가 업겟고 이와 反對로 後日 그 家屋을 다시 가지고 싶을때는 그는 男便의 無許可를 口實삼아 賣買契約의 取消를 請求할수잇다.

그러면 民法 一二一條에 依하면 無能力者는 契約을 取消하고 原狀回復하는 境遇에는 利益이 現存하는 限度에서 返還할 責任이 잇을뿐이다. 그러므로 안해가 그것을 全部浪費하여야 하지마는 萬若 그것을 全혀 消費하야 手中에 남은것이 업스면 받엇든 돈도 돌려주지안코 집만을 온전하게 찾어올수잇다. 家屋賣買의 境遇뿐아니라 돈을 借用한 境遇도 마찬가지다. 金錢을 借用하엿다가도 男便의 許可가 업섯든것을 口實삼아 金錢借用契約이라 (이것을 法律上 消費貸借契約이라고 稱한다)을 取消하며 그 利益은 現存하지 안흐므로 갑흘수 업다고 主張할수잇고 또 高價의 物件을 買入하엿다가 後에 마음에 들지안흘때에도 亦是 男便의 無許可를 口實삼아 물려줄수잇으니 그일面에 그 相對者에게 不安을 주는가 하면 妻自身에게는 有利하며 그 反面에 이것은 現行法의 缺陷이나 이러한 缺陷을 利用하는 夫婦는 判決例를 通하야 흔히 볼수잇다. 그러나 이러한 境遇에 裁判所는 事實上男便의 許可가 업는 境遇라도 默認的許可를 認定하는 境遇가 적지아니하다. 여기 關하야는 大正九年九月十日의 有名한 大審院判決이 잇다.

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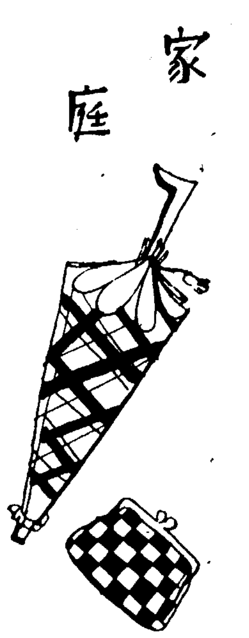
이와같이 網羅한 經濟的立場에서 이 制度를 보건대 妻自身에게 有利하지마는 이러한 優待는 人格者로서 참을수없는 恥辱이며 또 안해가 男便과 相議하지안햇다는 家庭的私事에 依하야 第三者에게 不安과 損害를 입히게하는 이 制度는 마땅히 撤廢하여야 할것이다. 그리하야 當局도 民法總則에서 妻의 無能力에 關한 規定을 削除하고 婚姻의 效力가운데 規定하야 妻의 能力을 適當히 擴張하자는 改正意見이 成立되엇다. 그러나 當局의 改正意見에 잇어서도 아직 妻를 男便의 同意權에서 脫却시키려고는 하지아는 態度를 엿볼수잇다.

그러나 外國立法에 잇어서는 이미 以前에「婚姻은 男子와 女子가 同等의 權利를 가지는것을 基本으로 한다」라고 宣言하엿으며 保守的인 英國에잇어서도 昭和十年八月二日에 이러한 妻의 能力에 關한法律을 改正하야 妻는 全혀 獨立한婦人 따라서 男子와 同一한 能力을 가질수잇는것을 是認하엿다는 消息을 傳하고잇다.

이와같이 外國에 잇어서는 夫婦別體主義에 依하야 妻는男便과 對等한 人格者의 資格을 法律上 是認하나 朝鮮에 잇어서는 아직 封建主義的 夫婦同體主義下에 夫婦는 男便에 依하야서만 代表되어잇는 現狀이다.

그러나 外國에서와같이 妻의權利의 擴大는 오로지 女性들의 社會的生産關係에의 不可避的 進出에 依한다는바를 附言하고 筆者의 「우리女性과 法律上能力」에 關한論述을 끗친다. (끝)

家庭



위암이야기

한번걸리기만하면 사형선고받는위암

위암은유전성이잇나없나 또위궤양파위암과게는?

위암은웨되는가

위암뿐이아니라 지금까지 여러가지암의원인에관하야 분명하게 알수가없으나 여러가지 학설이잇으니 대개말하자면 다음과같습니다.

(一)자극으로인하야된다는학설

어떤부분에든지 한국데 끈임없이 자극을받으면 암이된다는것이니 예를들면 언제든지 담뱃대를 물고잇으면 입술에암이생기고 인도부인들은 언제나가압을 쌔물고잇는고로 입속에 암이생기는법이오 엑스광선을 항상쪼이는 의사는 엑스 도게암이 생기는법이잇어 누구던지 직업에따라 한국데자극을 끈임없이주면 반드시 암이생기는것입니다.

(二)배속에서부터되는학설

태생기(胎生期)즉 모체속에서 발육하는동안 어떤세포가 다른세포속에 잘못들어가 그속에서잇는동안 그부분이외상(外傷)을당하거나 염증을받게되면 갑자기 암이된다는것인데 어릴때부터어린애의머리털을 세포가다른데 들어갓다고하면 그부분이 염증이낫을때 암이되어 수술을 해보면 머리털이잔뜩 들어잇는예가 없지아니하니 이것을태생암이라 할수밖에 없는것입니다.

암은 미균으로 되는일이 없다고하엿으나 여러가지로 실험해본결과 미균으로 암이되는일도 없지안습니다.

그외에도 태생으로잇을 때에는 아니오 태생후에라도 할수가잇는것이니 세포라는것은 서로서로 연락을맺고 잇을때는 발육하기를 어지하고잇다가 그런데서 떠나서 저혼자 어디로 잘못들어가면 엽마든지 발육을 하나니 이것이 암이되는것도 잇는것인데 이상에말한 기원인 저원인이 다잇으나 그 별뜻한 원인은 되면서도 암의원인으로서 확실한것을 보혼다고하는것기 되당한것 업나다.

유전성에대하야

위암의유전에 대하야는 나푸레온이 적당하에가 되는모양이데 그놈 세인트헤레나섬에서 영국관헌의 엄중한 감시를 받으며 안으로는 위암으로인하야 고통을받...

죽엇는데 그의아버지도 위암에 죽엇고 누이동생들도 위암으로 죽엇으니 위암은 파유전인것이 틀림없다는 사람도잇고 또 통계를 들어보면 백사람중에 十二인은 유전으로 죽엇다고 볼수잇으나 八十八인은 유전이아니라고 볼수잇으니 결국 암을 유전이라고 할수도없는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할머니가 위암으로 돌아가셧는데 위암이나 되면 어쩌나하는 신경을 쓸 까닭도 없는것입니다.

위궤양은암이되나

위궤양(胃潰瘍)이라는것은 중세가 어떤고하니 가슴이 답답하고 신물이 올라오면서 음식을 먹으면 위가아프고 또 시장해도 위가 아프면 이것을 위궤양이라고 할수잇나니 전문적으로말하면 위궤양을 압게된뒤로 위아이생기주것은 부적합수없으나 특게적으로 엄마반한비례는 자세히알수없는일이라한니다.

위궤양환자의 말로를 조사해보면 三분一은 내과적치료로 낫고 그다음 三분一은 위궤양으로죽고 남어지 三분一은 위암으로변하야 죽은것을 알수잇나니 위궤양이 경한것은 내과적치료로 낫수가잇지마는 중한것은 불가불 수술을하는것이 좋은 수술보다 위궤양의 수술성적은 위암 수술보다 성적이양호함으로 위궤양을 그대로두엇다가 위암이된 뒤에 수술을하려는것은 재미없는 일인고로 위암이되기전에 수술을 하는것이 결과가 좃습니다.

發明의神 토마스·에디손

◇……李東民

전기등 유성기 활동사진을 비롯하야 이천가지나되는 발명품을 연구하야 아메리카선매특허국(專賣特許局)의 문턱을 닳게한것도 이때부터엿습니다.

전신기사로서 일을보는 여가에는 공부하기를 게을리하지안햇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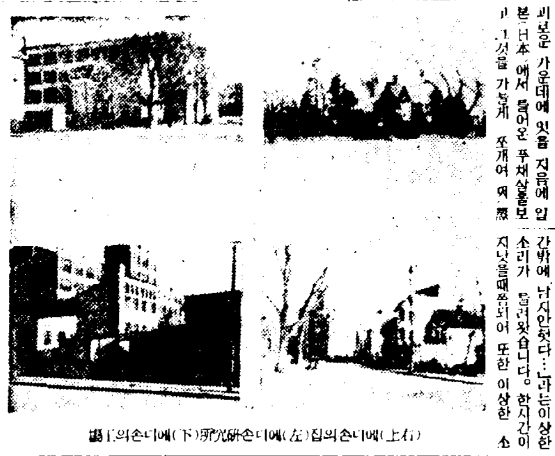
어느날 집으로 돌아오는길에 책점에를 들렷습니다.

전기에대한 책을 한질이나되도록 사가지고 열두위를요심으로보부터 무럽쓰고 집으로다릇집처서오는 길이엇습니다.

경관이 야순을 불너가 이것을 보앗습니다 엿가 도적놈이나 하는 뒤쫏아가면서 소리를 질럿으나 귀머거리인 그는 들을리가 없엇습니다. 그날은 엿살 이나 이 소리를 듣지 못하고 …… 하야 쇠를 잠어다엇습니다.

「당신이에 …」 경관은 달려와 수술섯습니다. 경관은 번호 의사는 ……

그때는 전기등을 연구하고 잇슬때엇습니다. 그러나 심지(燈心)를 채밀릭지 못하여 무한히 괴로운 가운데에 잇을 지음에 일본(日本)에서 들어온 푸채살을보고 그것을 가늘게 쪼개여 炭素가지고 탄소선(炭素線)의 白熱電球를 발명하엿습니다.



(右上)에디손의집 (左)에디손研究所 (下)에디손의工場

축음기를 처음보는사람들은 저상자속에 귀신이들어잇다는등 별별소리가 다만햇습니다.

어느날밤 동무들이 찾어와보니 「에디손」은 여전히 연구실에서 연구하고잇엇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그는나오지 안햇습니다. 밤은 점점 깊어만가고 주인은 나오지안흐니까 동무들은 그래도 도라가지안코 기다렷습니다.

「지긋지긋」 엽한시— 앞으로 한시간밖에 남지안헛다…」라는이상한 소리가 들려왓습니다. 한시간이 지낫을때쯤되어 또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왓습니다.

「여두시나…죽을 각오를 하엿는가…」

이소리를들은 친구들은 뛰여나왓습니다. 그때서야 「에디손」은 연구실을 나오다가 도망하는 동무를 만낫습니다.

「어디를 가는세인가?」

「무슨? 살리라고 도망하는길일세?」

「지금 그말을 드럿든가 그것은유성기의 레코—드소리야— 하 하」

그리고 「에디손」이 결혼식장에서 식도마치기전에 실험하고 생각이나서 실험실로 뛰여나갓다는 이야기며 조수(助手)들이 담배를 하도 훔처내니까 담배장사에게 부탁하여 담배대신 헌종이나 너어두엇다가 두리여 자기가 속고 정신없이 피엿다는 예기도유명하거니와 새금을바치러 갓다가 자기일흠을 잇어바리고 나왓다는 얘기는 웃기에는 너머애처러운 얘깁니다.

그는 연구를 떠나서는 살재미를 모르는사람 엿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머니의사진앞에 앉어 「내가 이만치 발명하고입혹을 언은것은 전혀 어머니의 은혜입니다」라고 그의은혜을 말하는것이엿읍니다.

연전에 어떠신문사에서 「아메리카에서 누가 제일 위대한사람이냐」고 무엇을때 「에디손」이 재일이라는 첫자리에 뽑히엿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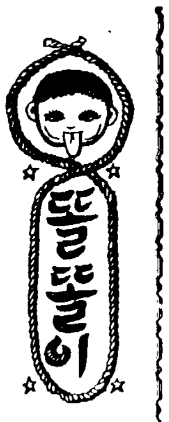
이러케 유명한 「에디손」이 봉양방콩한번 하다고 벼르기만하더니 한번와보지못하고 五년전 (一九三一년十월十八일에 八十五세를 일기로하고 세상을떠낫으니 저세상에가서도 연구실에만 잇는지모르지요. (끝)

달팽이요리잡 보섯습니까

보기만해도 소름이 쭉끼치는 달팽이가 불란서에서는 일등요리로 사용이 된다니 징그럽지오? 논에서나는 우렁이를 먹고두에번더를먹는생각을하면 아모러치도 안치마는

웨일인지 생각만해도 음식맛이없어질것갓습니다 맛은 전복맛과 꼬갈흔데 영양분도 만타합니다 사진은 요리에 쓰라고기르는 달팽인데 옹기쇠기모여맛잇는 모이를먹는 모양입니다

똘똘이



李無影 作 鄭玄雄 畵

(五二) 모험 10

그러나 월시반이 되도록 정거장안에는 l 림뭇한 사람이 하나도 없엇습니다.

「웨일일까요 필순아버지」

하고 수동이는 호텔이 나기 시작햇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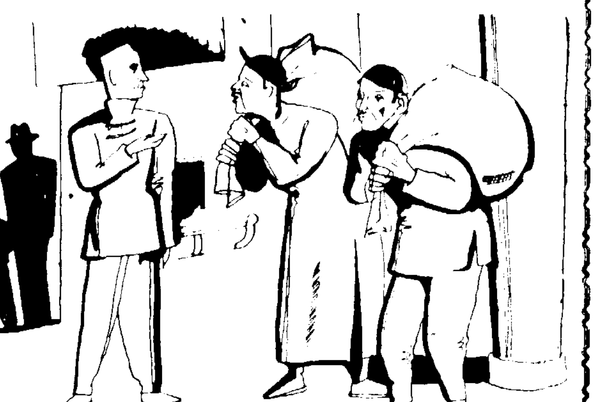
「청인이 안오면 큰일이라도 날텐데」

「금세웨일이지 몰르겟구나」

「똘똘이가 그럼 한데 날큼이게 아닌까요?」

「서마 그러게 야은 똘똘이가 한머기야 햇을라구!」

수동이와 필순아버지가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고 잇슬때엿습니다. 사람들이 가득한 대합실로 웬 청인하나가 쓰윽 들어옵니다.



수동이는 그청인을 어디서 본 보앗다고 생각햇습니다. 그러나 암만 생각해두 어디서보앗는지 생각이 안나서 우두거니 섯으랴니까

「수동아 저기 잇는 청인보앗니?」

하고 필순 아버지가 묵써깁니다.

「글세 저두 어디서 본것갓은데 당초에 생각이 안나는군요. 필순 아버지는 어디서 보신지 생각이 나서요?」

「아니 나는 통 본적이 없는 청인인데……」

「그놈의 때가리 같으면 흔자서 나올리가 없겟는데요……」

그때 잇습니다. 또 다시 문이 열리면서 청인이 들어왓습니다. 청인 하나는 기다란 봇짐을 둘러메고 그뒤에 따라오는 청인은 그보다 조금 적은 봇짐을 어깨에 메고 잇섯습니다.

「어쨋던 지금들은 잘 지켜봐야한다.」

필순 아버지는 이러게 말하며 그상에 가서 앉어서 그쪽만 노려보고 잇섯습니다.

라디오

JODK

四月廿四日(金)

▼六時 라디오少年文庫 『作文과그鑑賞』(二) …… 金相洪
▼六時二十五分 史譚 …… 崔人
▼七時三十分 講演『女…』 …… 張
▼八時 歌詞一、春眠曲 …… 金 大笒 …… 金 杖鼓 …… 金
▼八時三十時 流行歌 — 부터全國中繼 —
一、간아리랑 …… 王平 詞 鮮于一扇
二、靑春打鈴 …… 劉道順
三、新민니리 …… 王平作 詞 (妻) 駿泳作曲
四、春夢 …… 趙明岩作 詞 (妻) 鮮于 一作曲
五、饑饉歌 …… 王平作 詞 (鮮于) 作曲
▼八時五十分 唱劇調 伴奏 DK …
一、短歌 竹杖芒鞋 二、唱劇調 春香歌中 碣石티넘어가는데 …… 鼓手 丁元甫 金昌龍

四月二十五日(土)

▼午前七時二十分 라디오體操
(第一放送)
▼午後零時五分 獨唱 金 …… 피아노伴奏 李 興 烈
▼一時 野球實況(刑務)— 京城그라운드에서中繼 —
▼六時 兒童劇「貪食의子」一幕 — 林隨進作 — 京城 어린이放送會 指揮 金 虎 俊 效果 金 洛 升
▼六時廿五時 時事解說 ……
▼七時卅分 講演「豪農에對하야」 ……
▼八時 流行歌 …… 金 潤 森 伴奏 …… 朴 山 紅
▼八時卅分 放送劇「號外」 DK演藝部
▼八時映畵이야기「運河의微風」 …… 閔亭植 宋亭燮 …… 柳 寅 設

森永 ミルクチョコレート

第一放送

▲午前六時三十分(東)基礎佛語講座(六)▲七時一分(東)湖の修養觀經(二)▲十時三十分東…の時間▲午後零時…▲…り第十一日)▲…東京…野球試合實況(東京大學野球聯盟リーグ…)場より中繼▲一時…京城球場より中繼(第二放送)京城 ▲二時(東)婦人の時間 …き場合▲六時(東)子供のおけいこ▲七時三十分(大)子供と家庭の夕▲九時時事解說

四月二十六日(日曜)

▼午後一時 野球實況—京城그라운드에서中繼— 一安武對府廳、金鮮對殖銀—
▼六時 하—모니카演奏 崔英權
▼六時三十分 心田開發
▼七時三十分(東)바이올린과피아노「君子の曲」…… 安寅權
바이올린 시몬골드베르그 피아노 리리·크라우스
▼八時 歌曲
一、晉樂二、羽樂三、編樂四、編五、太平歌 …… 河圭一 …… 金 蘭 紅 玄琴 …… 金 雨 塘 洋琴 …… 金 相 淳 大笒 …… 金 永 根 長鼓 …… 金 一 宇
▼八時二十五分 流行歌 金永順 伴奏DK管絃樂團
▼八時四十五分 …… 崔 貞 子
▼九時五分 …와併唱 …… 沈相健 鼓手丁元甫

白蓮流轉記 (54)

尹白南 作
李靑田 畵

四、떠러지는길(八)

싫어하는 백련를 살살 달래며 꾀이며 하여가며 분세수를 다시 시키고 옷을 가려 입힌후에

「글세 상관이 잇니 어차피 너 기생으로 나가겟다면서 아니할말루 남의 여염人집건넌방구석에서 내외하구 살사람이니 그러니 무에 부끄러워서 그러니 그럽래서야 기생으로 나가서 뭇사람들에게 어떠케 대헌단말이냐 기생은 외입쟁이의 밥이라는데」

백련은 그가 자기를 데려가려고 실어하는 사람이란점에서 더욱 틀어가기가 실햇지마는 다시 생각하고보면 그에게 가고아니가는 것은 자기가 지금 시험해보라는 딴문제이다. 연인과 파선과는 다르다

백련은 안人방 주렴 밖에서 갑갑 머뭇머뭇하며 옷깃을 다시 한번 만지적거리엇다.

「이 애 들어간다우」

동뒤에서 당숙모가 방안에서 너시야 신이야하고 이야기에 끔이끼인 남편에게 소리를 질럿다.

「온치 어서 이리 들어오너라」

하는 당숙모는 조만수(曹晩壽)... 객주업을한다는 부자 조만수(曹萬洙)란 사람이와서 술타령을 하고잇는중이다.

그가 자기를 후처로 데려가겟다는 당자인줄 짐작하게되매 백련은 새삼스러이 부끄럽고 공포에 가까운 축욱이 들려서 그방으로 들어가고 싶지안타.

그러나 숙모의말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엿다. 기위 기생으로 나가라는 결심까지 하게된바에야 이 사람 저사람손에 부대길것은 시간의 문제뿐이다.

지금부터 연인을하고 파선을해야한다는당숙모의 말이 그럴듯하지안흔것은아니다.

「그러치만 어쩨」

하고 주저하는것을 당숙모는

「허— 참 그애두 네소견에두 생각해봐라 그래서야 어떠케 파견이 된단다더나 생판모르는사람도 만이 설울텐데 그만해두 너의 아저씨께서 아시는 손님을」 하고 경위와 정을 다하야 전하는것이엇다.

「구만일구 이리오너라」 하고 손목을 잡아다리엇다.

숙모의 당연한 경위잇는말에 놀리고 충동이어저서 백련은 마츰내 용기를 냇다.

「그럼 누세요 살테니」 …… 그럿 그럿기지 설마 너더러 소리야 허라시겟니 술이나 몇잔 부어드리고 나오렴으나」 하고 등을 밀엇다.

「아주 나히 어려서 어찌 수줍어하는지」 하고 방ㅅ 웃는다.

반수는 나히가 설혼네산이나되는 장년이오 그동안 무번이나 장가를 들어본 경험자일뿐아니라 생화가 생화이니만치 연인하여 얌하고보면 얼굴 귀절이 상당이 무꺼운 숙기조혼사람이지마는 백련의인물에 온근이 홀려서 얘불태든사람이라 백련이가 들어온다는말에 엄이 헤하고 버러지면서도 아간 어색한 기운이 얼굴에 로 고치는것이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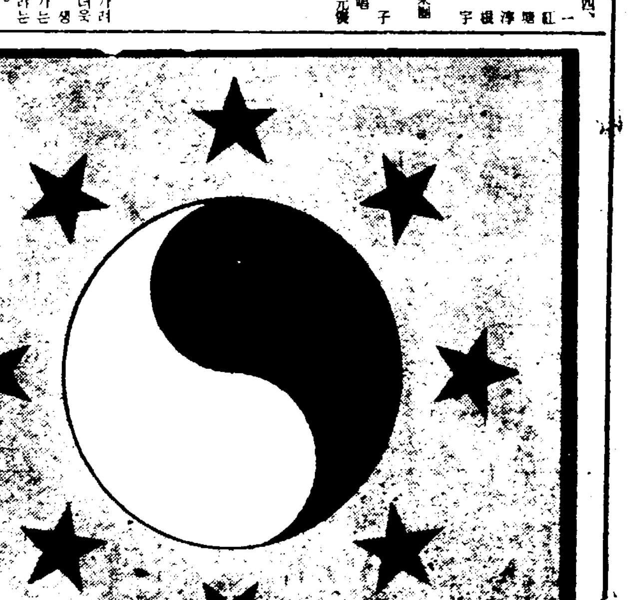
백련은 방를 조용이 거더채치고 한발방안으로 들어섯다.

「이리와서 앉어라 이리와」 선봉부친은 수저 수저하는 백련의 치마를 잡어다리시어하야 자기곁에 앉힌다 조만수 하고는 마주바라보게되는 위치다.

조만수 역시 「에헌」 하고 잔기침을하며 약간 몸을 바로잡는다.

「이 어른이 저 조만수 조서방이라고 문밖에서 객주를 하시는 분인데」 하고 뒤人말를 더하려다가 고만 두고는

「그애가 백련 이오 긴에서 넘어섯다니까 아시겟지마는」 하고 조만수에게 백련를 소개하엿다.


不老草

태극성광목

태극성광목은 틀림업는 우리의손으로짠 조선사람의 광목입니다 經濟的은 아니라 틀림업는 광목이 잇슴니다 點으로 가장 튼튼하고 질긴 광목

어째서 튼튼한가?

태극성광목은 橫으로나 縱으로나 경위가 다같이 굵게 짜인 組織이므로 絶對로 틀림없이 튼튼하고 질긴 광목입니다 그래서 한번사보시면 그 强度에 놀라실 것입니다

목광한틀튼 감옷리우

목광성극태

本社製品 太極星 天桃 一不老草 雙鹿 三山 蔘栗 報喜 三神山 永登浦 鷲島

京城府… 京城紡織株式會社 工場 永登浦

經濟關係新法案 (一)

米穀關係法再登場

米穀自治管理案

이法案은 一言으로 말하면 過剩米의 處理이다 現行米穀統制法을 補强하야 米價의 維持를 期하고저하는것이다 [illegible]

(一) [illegible] 米穀統制法과 그의 關係 [illegible]

本法이 日本內地、朝鮮、臺灣을 通하야 共通的으로 [illegible] 米穀年度의 [illegible] 毎米穀年度初에 (卽每年十一月中) 日本內地、朝鮮、臺灣을 通하야 米穀收穫高 [illegible] 一月一日現在의 米穀現在高를 合하야 供給에 對하고 一方消費高를 [illegible]

(二) 統制米의 數量과 方法

過剩米의 統制는 [illegible] 日本內地、朝鮮 [illegible] 行하는것이 本法의 目的이다 [illegible]

(三) 貯藏制度

政府는 各組合員의 [illegible]

(四) 貯藏解除와 政府買上

이같이 各組合에 配定하야 [illegible]

(五) 補償과 助成

本法案이 民間의 協力을 基調로 하야 [illegible]

(六) 第二次統制

每年十一月中에 「第二次收穫豫想」[illegible]

以上과 같은 內容을 가진 [illegible]

一、米穀販賣組合이 [illegible]

二、中央統制組合 [illegible]

三、米穀販賣組合聯合會 [illegible]

四、米穀販賣組合이 [illegible]

五、貯藏米에 [illegible]

正租共同貯藏助成法案

[illegible]

預金利下後의 情勢

平穩裡에 實施

預金移動도 殆無

低金利認識의 普及으로

朝鮮內銀行의 預金利下는 去四月二十日부터 實施하엿는데 [illegible]

商業銀行

貸出金利引下

[illegible]

端境期接近으로

原料不足 顯著

大製絲工場操續休業

[illegible]

北滿大豆의

淸津輸出旺盛

[illegible]

米日 [illegible]

[illegible]

京城金價低落

買十錢賣五錢低

[illegible]

全朝鮮鑛區設定

五千六百鑛區

鑛業熱時代를 如實反映

總督府調査 昭和十一年一月末現在의 全朝鮮鑛區設定數는 [illegible]

國民政府

關稅引下決定

密輸出을 防止코저

[illegible]

道	鑛區	坪數
京畿	三二三	一〇三、七〇九
忠北	三八三	一二六、四四〇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對中水産物

輸出增加

朝鮮水産物 [illegible]

獨逸非常時財政 (中)

失業救濟、事業振興을 中心으로

租稅負擔輕減

[illegible]

補助及保護

[illegible]

景氣探報台

日英綿布輸出

[illegible]

朝郵上海航路活況

[illegible]

財界瑣信

◇… 朝鮮電力送電線架設 … [illegible]

◇… 金融組合聯合會 … [illegible]

◇… 成業社定時總會 … [illegible]

今日의 市況

四月廿四日

株式 (單位十錢)

正米 (三等單位)

期米 (單位錢)

商品 (單位十錢)

正租

[illegible]

時勢와 市況

株式 更低뒤 反强

前場氣迷

[illegible]

朝取短期前場步調

[illegible]

後場强調

[illegible]

朝取短期後場步調

[illegible]

銀鍊期說

警戒中樂觀

[illegible]

實物賣買價前場

[illegible]

東京國債市場

[illegible]

期米

無活氣

小弛

前場伸悩 [illegible]

財◇海◇餘◇波

[illegible]

金利와配當의

大納買人氣

[illegible]

解除正租의

今後動向注目

後場頭重

[illegible]

挽下念慮로

買方警戒嚴重

[illegible]

堂島前場情報

[illegible]

堂島立合怠慢一掃

[illegible]

米豆餘聲

[illegible]

正米 다시 强含

京城不高

仁川同事

釜山軟調

大邱鈍調

木浦小弛

群山小堅

[illegible]

內外金銀時勢

(四月廿四日)

海外金銀

[illegible]

東京金銀

[illegible]

京城金銀

[illegible]

海外經濟

[illegible]

金融

[illegible]

商品

[illegible]

各限後場

[illegible]

雜穀

[illegible]

朝米取株 光 仁川府海岸町三丁目 康益夏商店 京城府黃金町二丁目 金益證券株式會社

米 東 期 趙俊鎬取引店 仁川海岸町三丁目